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㉑ 신라 선승의 구도수행 2



▶한줄요약
혜소는 귀국하여 상주 남장사에 주석하며 홍주종을 전파했고, 이엄은 911년 귀국하여 김해 소율희(蘇律熙)의 귀의를 받게 되어 본격적 대중교화를 시작하고 수미산문을 여는 등 신라의 구법승들은 활발한 구법여행 후 이 땅에 선법을 심고 넓혔다.

밖으로 떠난 '구법'과 안에서 이룬 '구법'

7. 돌아온 혜소, 도의와의 약속을 지키다

진감 혜소(慧昭, 774~850)가 신감(神鑑)을 뵈었다. "반갑다. 이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쁘게 다시 만났구나." 신감은 전생 수행 인연을 환기하고 바로 인가를 해주었다. '초발심이 정각'임을 실천했다. 숭산 소림사 '유리계단'에서 구족계를 받았으니, 인도 스님이 유리병을 바치며 "당신의 자식이 되겠습니다."라고 한 태몽의 계시가 그대로 실현됐다.

도의와 혜소는 양쯔강 남북 유역을 오가며 따로 순례를 하다가 신라 출신 무상(無相)의 영당 참배차 성도로 갔다가 만난다. 두 사람은 귀국하면 선법을 펼치자 굳은 약속을 하며 구법여행을 함께한다. 혜소는 20살 많은 도의를 스승과 같이 모셨고, 도의는 혜소에게 홍주종(洪州宗. 말의 기능을 부정하고, 일상의 지각으로부터 바로 깨닫게 하는 선종)의 수행법을 전수해주었다.

혜소는 귀국하여 상주 남장사에 주석하며 홍주종을 전파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자 지리산 쪽으로 옮겨가는데 호랑이 몇 마리가 길을 인도하였다. 세상 존재들에 대한 차별적 분별을 넘어선 혜소의 도력에 감복한 호랑이들이 기꺼이 그 과업을 도맡았을 것이다. 신감으로부터 범패를 배운 혜소는 대중교화를 위해 범패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범패 음악의 기틀을 마련했다.

혜소는 옥천사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선법을 베풀었다. 지증 도헌(道憲)이 독자적인 희양산문을 성립시키는 데도 큰 영향을 주었다. 도의와의 약속을 오롯이 지킨 것이다.

보살이라는 견해를 짓지 말라. 평상의 마음이 곧 도이니라." 이 한 마디에 범일은 크게 깨달았다. 약산 유엄(惟儼)을 찾아갔다. 약산이 물었다. "어디서 떠났는가?" "강서에서 떠났습니다." "무엇하러 왔는가?" "화상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길이 없는데, 그대가 어떻게 찾아왔는가?" "화상께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신다면, 저는 화상을 뵙지도 못할 것입니다." 약산이 찬탄했다. "대단히 기이하구나. 대단히 기이하구나. 밖에서 들어온 맑은 바람이 사람을 얼리는구나." 범일은 이렇게 중국 선지식과 선문답을 활발발하게 구사하여 신라 선승의 경지를 드날리고 스스로 더 나아갔다. 귀국한 범일은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 40년 동안 '줄지은 소나무로 도를 닦는 행랑'으로 삼고 '평평한 돌을 좌선하는 자리'로 삼았다.

대경 여엄(麗嚴, 862~930)은 〈화엄경〉을 공부했지만 교종이 최상승의 진리가 아님을 알고 선종으로 다가갔다. 입당하여 운거 도응(道膺)을 뵈었다. 도응은 "그대와 이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네!"라고 말했다. 신감이 혜소를 만났을 때와 같은 환영의 말이었다. 선각 형미(逈微), 법경 경유(慶猷), 진철 이엄(利嚴) 등이 찾아갔을 때도 도응은 같은 수사로써 신라 선승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제자로 받아주었다.

중국 선사와 당당한 선문답
혜소, 범패 활용한 대중교화
도선, 이 땅의 풍수설 정립



도선은 이 땅의 산수와 산세에 대한 밝은 안목으로 풍수설을 정립하고, 고려 건국에 기여했다. 사진은 도선국사 진영.

8. 말 없는 가운데의 말, 법 없는 가운데의 법

적인 혜철(慧徹, 785~861)은 입당하여 서당 지장(地藏)을 찾아갔다. 지장의 인가를 받은 혜철은 지장이 입적하자 서주 부사사(浮沙寺)로 가서 대장경을 공부했다. 3년 동안 자리를 펴지도 눕지도 않고서 열중하니 경문의 오묘한 뜻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문장과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 혜철은 경전 읽기에 충실했지만 궁극의 마음은 선에 있었다. 마침내 "부처는 본래 없는데 억지로 이름 붙인 것이고, 나도 본래 없는 것이므로 일찍이 어떤 물건도 있은 적이 없다. 묵묵한 마음이 곧 진심(眞心)이고 적적한 지혜가 곧 진혜(眞慧)인 것이다."라며 언어를 넘어선 진리를 깨달았다.

통효 범일(梵日, 810~889)은 중국 선지식을 두루 참문하며 당당한 선문답으로 수행을 이어갔다. 염관 제안(齊安)이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동국에서 왔습니다." "수로로 왔는가, 육로로 왔는가?" "두 가지 길을 모두 밟지 않고 왔습니다." "그 두 길을 밟지 않았다면 그대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해와 달, 동과 서가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제안이 "실로 동방의 보살이로다."라고 칭찬했다. 범일이 물었다. "어찌하여야 바로 부처를 이룹니까?" 제안이 답했다.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그저 더럽히지나 말라. 부처라는 견해, 할 때마다 제접을 거절했다. 어느 날 늙은 나무꾼이 나타나 "먼저 깨달은 자가 아직 못 깨달은 자를 깨우쳐 주는 데 어찌 그리 인색한가!"하고 꾸짖고는 사라졌다. 그 뒤로 도헌은 찾아오는 수행자를 거절하지 않았다. 이 땅에서 수행한 선승이 이 땅의 젊은 수행자를 제접하고 지도하는 '토종 수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9. 이 땅을 딛고 일어서다

보조 체징(體澄, 804~880)은 염거(廉居)의 인가를 받은 뒤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온누리의 본체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그대로 돌아왔다. 체징의 귀환은 원효의 중도귀환과 함께 선승들이 중국으로 구법여행을 떠나지 않고 이곳의 산수와 속세에서 수행하는 흐름을 열었다.

최치원이 지증 도헌(道憲, 824~882)의 일대기를 서술하면서 "서역이나 중국에 가지 않고도 도에 이른다."라고 설파한 것도 이런 흐름을 포착한 것이다. 도헌(道憲)은 구산선문 개창자 중 유일하게 중국 유학을 다녀오지 않고서 희양산문을 개창했다. 일찍 도를 이룬 도헌은 후배들이 법을 구하며 이엄에게 심인을 전했다. 이엄은 911년 귀국하여 김해 소율희(蘇律熙)의 귀의를 받게 되어 본격적 대중교화를 시작하고 수미산문을 열었다.

도선(道詵, 827~898)은 15살 때 출가하여 〈화엄경〉 신동으로 통했지만 〈화엄경〉의 언어에 만족되지 않아 적인 혜철(慧徹, 785~861)의 문하로 들어갔다. 동리산문의 개산조인 혜철은 도선의 상근기를 간파했다. 도선은 '말 없는 말, 법 없는 법'을 거듭 사유하다 바로 깨달았다. 혜철의 인가를 받은 도선은 중국 유학 대신 이 땅의 명산대천을 떠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산수에 바탕을 둔 풍수를 터득했다. 방방곡곡을 다 둘러본 힘으로 곡성 옥룡사에 35년 동안 머물며 제자들을 길러냈다.

진경 심희(審希, 855~923)는 19살에 구족계를 받은 후 이 땅에서의 운수행각을 시작했다. 심희는 "선종이 동쪽으로 왔으니, 무엇 때문에 서쪽으로 가겠는가. 나는 이미 혜목(惠目, 玄昱) 선사로부터 법을 받았고, 이곳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니, 어찌 뗏목을 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뗏목을 탈 뜻을 갖겠는가?"라며 중국 유학을 거절했다.

863년 9살 나이에 현욱에게 출가한 심희는 여주 혜목산 고달사 선풍을 더욱 크게 일으켰다. 그러나 891년 궁예가 북원[원주]을 공격하자 김유신의 후손으로서 친신라적 입장에 있던 심희는 고달사를 포기하고 강진 송계선원으로 가서 참선을 가르쳤다. 이듬해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자 심희는 양양 선림원지(禪林院址)로 옮겨갔다. 거기서 명주 굴산선문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었지만, 894년 궁예가 명주를 공격하자 다시 김해로 떠나야 했다. 김해지역 지방 호족인 소율희의 도움을 받아 창원 봉림사를 개창했다. 견훤이 경상도 일대를 공격할 때 봉림사는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봉림사를 거점으로 삼아 은사 현욱이 세운 고달사의 전통을 부흥하려던 심희의 뜻이 꺾였다. 심희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 유학을 떠났던 원종 찬유(元宗燦幽, 869~958)가 돌아왔다. 찬유는 924년 스스로 고려 태조를 찾아갔다. 친신라적이었던 은사 심희와 전혀 다른 정치노선을 천명한 것이다. 고달사는 찬유에 의해 찬란히 부흥되었다.

낭원(朗圓, 854~930)은 화엄사에서 〈화엄경〉을 배웠다. 남해 금산으로 가서 백일 동안 곡기를 끊고 이어 3년간 솔잎만 먹으며 보리를 증득하려 했다. 참선 중 어떤 노인이 나타났다. "빨리 사굴산을 찾아가시오. 거기 신인[범일]은 능가보월의 마음과 종성을 모두 통달했다오."라고 했다. 신인은 중국 선지식이 아니라 국내 선지식인 범일을 참문하도록 권유한 것이다.

진공0운(眞空0運, 855~937)은 가야산 선융(善融)의 문하로 들어가 계속 머물며 경전과 계율을 공부했다. 어느 날 선융은 은거하겠다며 제자들을 모두 내보냈다. 진공의 뜻하지 않은 운수행각이 시작됐다. 한 곳에 이르러 살펴보니 수행승이 안거한 흔적이 있었다. 땅에 서린 그 기운을 흠모하며 수행하다 설악산 진전사로 갔다. 절에 남아 있는 도의(道義)의 자취를 발견하고 감동했다. 영탑과 진영을 참배한 뒤 영원히 도의의 제자가 되는 의식을 올렸다. 그 뒤로 진공은 '선승'으로만 자처했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도의를 추모하며 더 치열하게 수행했다. 잠시 김해 초은(招隱)의 거처에 주석하니 학인들이 구름과 같이 몰려왔다.

올라와 소백산사(小白山寺)를 중건하고 주석하는데 태조가 궁중으로 모셨다. 진공은 나라를 이끌어갈 기본 마음을 밝혀주었다. 진공을 흠모하던 태조는 진공에게 개경에서 주석하기를 간청했지만 진공은 뿌리치고 소백산으로 돌아왔다. 진공은 제자들과 수행을 이어갔다.

제자가 물었다. "가섭은 어떤 분입니까?" "가섭이니라." 또 물었다. "석가는 어떤 분입니까?" "석가일 뿐이니라." 언설을 내려두고 선의 세계로 깊이 들어간 경지를 이렇게 표현했다.

10. 이 땅 산천을 누빈 결실

신라의 선승들은 중국으로 가서 새로운 사람과 산천을 경험했다. 익숙한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좁은 안목을 벗어던지고 온 세상이 다기로우면서도 하나인 화엄 연기를 목도했다. 다른 한편 이 땅에 남아 이 땅 산수를 편력한 것은 새로운 시작을 뜻했다. 이곳 세상 사람들의 형편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새 세상이 도래하는 것도 감지했다. 이른바 지방 호족과 백성의 등장이었다. 선승은 가장 이른 시기에 방방곡곡의 '지방'을 발견해주었다.

풍수설을 정립한 도선은 이 땅에서만 산 선승이었다. 이 땅 산수와 속세에 대한 선승의 밝은 안목은 심희의 경우처럼 후삼국 시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격심한 고초를 겪게 했지만, 불교국가 고려의 건설과 지속에 일정하게 기여하기도 했다.

왕건이 국정의 요체를 묻자 여엄(麗嚴)은, '제왕과 필부의 닦을 바가 다름'을 강조한 뒤, '백성을 자식으로 여겨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가능한 죄인에게 사형을 내리지 않는 자비로운 군왕'으로서 나라를 이끌라고 조언했다. 선승이 오랜 세월 이 땅을 운수행각 하면서 일으키게 된 중생에 대한 연민이 이 말에 다 담겼다.

〈연세대 객원교수〉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탕)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2019년10월31일(목요일) KBS1 저녁7시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 2022년2월16일(수요일) KBS1 저녁6시 내고향 지리산 함양 해발1000m 자생「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나는 이렇게 붓다가 되었다
– 깨달음의 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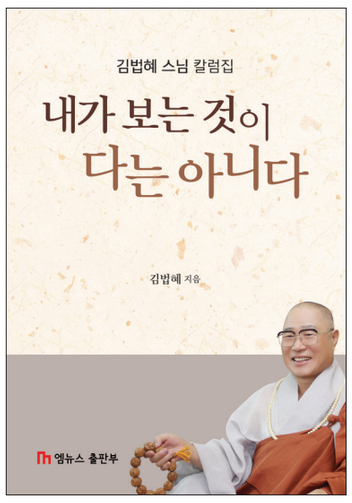
『붓다자나 아카데미』는 붓다를 완성한
"깨달음의 경" 전법으로
아라한을 성취케 하는 수행 불사입니다.
정법을 선양하고 붓다의 혜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청정 수행자의 지원을 환영합니다.

수강과목	붓다자나(깨달음의 경) 수행체계 (1410아디까싸라 : 118싸띠, 21보디, 2쌈보디)
수강인원	16 아라한(선착순 마감)
수강대상	만 50세 미만, 비구 · 비구니 (종단 구별 없이 신청 가능)
수강기간	1년(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수 강 료	월 10만원 (농협 843173–51–026991, 예금주: 길상암) ※입금시 "보궁 00(법명)"로 하시고 문자 바람.
전법교수	보궁선원장 수완나
수강문의	010–9176–7000
개 강 일	2022년 10월 20일(목) 오후 2시
수료혜택	붓다자나 전법인증서 수여
수강장소	해인사 길상암 선인당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645–8(치인리)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길상암 감원 광해

신 간 안 내

김법혜 스님 칼럼집
내가 보는 것이 다는 아니다
- 금과옥조로 삼아도 좋을 명칼럼 -



■ 크기 : 신국판 가로 152mm, 세로 225mm
■ 면수 : 306면
■ 가격 : 18,000원

칼럼니스트 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께서 수년간 충청일보 충청산책 코너에 발표한 글을 모아 『내가 보는 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제호로 두 번째 칼럼집을 출간했다.

여러 분야에서 중책을 맡아 성실히 봉사하며 불가에 적을 둔 스님이자 유명 문사로서 탁월한 능력과 추진력으로 지역사회에 큰일을 해내시는 우리 사회의 사표로 그동안 심도있는 주제와 다양한 소재로 세상사를 두루 다루며 정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필치로 사회의 파수꾼으로서 불의한 일에 경종을 울리며 지면에서 종횡무진으로 부조리를 난타하는 막힘없고 거침없는 필봉의 위세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이다.

글쓰기는 일련의 수도 과정과도 같은데 어떤 글을 쓰더라도 깊은 사고와 감정의 절제가 따르는 정중동의 행위이기 때문에 특히 신문칼럼은 우수한 문장력은 물론이고, 폭넓은 현실감각을 바탕으로 사실을 직시하여 분석해 내는 예리한 혜안이 있어야 한다.

칼럼집 『내가 보는 것이 다는 아니다』는 각계각층에서 벌어지는 사안을 족집게처럼 짚어가며 이야기를 개진해나가는 필력은 감탄을 자아내게 하며, 삶의 경륜과 지혜가 문장 곳곳에서 묻어나는 유려한 문체에서 김법혜 의장의 필력을 가늠하게 되고, 공감가는 내용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될 것이다.

글 행간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비심이 깃들어 있어 법고와도 같은 이 책을 곁에 두고 금과옥조로 삼아 부디 이 칼럼집이 독자로부터 사랑받고 널리 읽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사)한국문인협회 사무총장 **표중식**

도서 구입 문의 • 엠뉴스출판부 • ☎ 041)903-3113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303 전원빌딩 401호